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우13404)

031)729-9000

<http://www.snyouth.or.kr>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제안서 자료집

아이디어, 블레스 유

IDEA, Bless U

주최·주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후원



성남시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GYEO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경기일보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제안서 자료집

아이디어, 블레스 유

IDEA, Bless U

CONTENTS



1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인사말	03
•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란?	04
• 대회주제	04
• 사업개요	04
• 세부운영내용	05
• 시상내역	06

2 본선진출 제안내용

• 별다래 B	09
• 가온누리	13
• 은가비	19
• 온(溫)리(利)성남	27
• 꿈나르샤	33
• 1000%	41
•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45
• 티모태 (티끌 모아 태산)	49
• 너나들이	53
• 정당한 가치	59



Concept
Top

Develop
80%

IDEA

Social
Networks



Plan





인사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최선웅입니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성남시 18만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생각이 지역사회로 전해지고, 함께 공유하는 참여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8회째를 맞이하여,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로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며, 성남시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몸소 보여주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대회를 통해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기회가 되며,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가 증진되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슬로건입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세상을 바꿀 때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복의회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생각이 우리 주변을,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최 선 웅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본선’에 함께해주신 청소년 및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고민을 담은 제안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 10개 팀과 참여한 모든 청소년 및 지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성남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지난 8년간 매년 진행되어 온 대표적인 청소년 사회참여의 장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 자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여’라는 시민의 행동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대회’를 통해 시민 참여의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경험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소중한 제안들이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 된 성남’을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도 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선에 진출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 수 미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1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란?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민주시민 역량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대회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해결책 및 개선방안을 도출·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 및 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2 대회주제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IDEA, Bless U

아이디어, 블레스 유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 및 변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청소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3 사업개요

- 사업명 :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아이디어, 블레스 유(IDEA, Bless U)'
- 일시 : 2018. 11. 10.(토), 15:00~18:00(본선) ※참가접수: 2018. 10. 10.(수)~25.(목)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 대상 : 성남시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 인원 : 4,500명(온라인 및 현장참여인원 포함)
- 내용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 제안내용 서류(예선) 및 발표심사(본선), 시상 등
- 주최·주관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 후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일보





4 세부운영내용

가 제8회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 대회 설명회

- 일시 : 2018. 9. 1.(토), 16:00 ~ 16:30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홀
- 대상 : 제안대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제안대회 참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교육

나 제안서 접수

- 제출기간 : 2018. 10. 10.(수) ~ 10. 25.(목)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제안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2.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제안서 5매 이내) ※양식 별도첨부
 3. 제안내용 : 지역사회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변화,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다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18. 10. 29.(월) ~ 11. 2.(금)
- 심사방법 : 심사위원 서류심사 100%(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 심사위원 구성 : 행복의회 의원2명 포함 청소년 전문가(내·외부) 5인 내외
- 심사기준 : 사회문제 인식(사전조사 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

라 제8회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 대회(본선)

- 일시 : 2018. 11. 10.(토), 15:00 ~ 18:00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실
- 대상 : 본선진출팀 10팀 및 청중평가단 100명
- 내용 : 제안대회 본선(본선진출팀 제안 발표, 심사 및 시상)

시 간		소요시간 (분)	내 용
부터	까지		
13 : 00	14 : 00	60	참가팀(본선진출팀) 리허설
14 : 00	15 : 00	60	참가자, 청중평가단, 심사위원 출석 확인
15 : 00	17 : 30	150	본선진출팀 제안내용 발표
17 : 30	17 : 50	20	초청공연 및 심사결과 집계
17 : 50	18 : 00	10	시상식 및 단체사진 촬영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본선진출팀 및 제안내용

구분	참가팀명	제안내용
1	별다래 B	안전한 성남시 주·인·공 (주차공간 인in 공유어플)
2	가온누리	이걸 토토가?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3	은가비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4	온(溫)리(利)성남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원 온도계
5	꿈나르샤	학교 통폐합, 그 곳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
6	1000%	학플리(학교 플레이 리스트; 학생들이 1000% 만족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하여)
7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8	티모태 (티끌 모아 태산)	청소년 의견 수렴함(청소년 신문고)를 만들어주세요.
9	너나들이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10	정당한 가치	학교는 99%의 선생님과 1%의 학생으로 이루어진다

5 시상내역

훈 격	시상팀	비 고
계	10팀	
성남시장상	2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상	2팀	교사 공로상 별도수여
성남시의회 의장상	2팀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	2팀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상	2팀	



제 8 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01

안전한 성남시 주·인·공

(주차공간 인in 공유어플)

별다래 B / 수정청소년수련관

02

이걸 토토가?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가온누리 / 판교청소년수련관

03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은가비 / 중원청소년수련관

04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원온도계"

온(溫)리(利)성남 / 한솔고등학교

05

학교 통폐합,

그 곳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

꿈 나르샤 / 중원청소년수련관

06

학플리

학교 플레이 리스트: 학생들이 1000% 만족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하여

1000% / 한솔고등학교

07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청소년문화혁신위원회 / 금광청소년문화의집

08

청소년 의견 수렴함

(청소년 신문고)를 만들어주세요

티모태 / 정자중학교

09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너나들이 / 성남시청소년재단

10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연합기구 설립

정당한 가치 / 정자청소년수련관+늘푸른고등학교



안전한 성남시 주·인·공 (주차공간 인in 공유어플)

별다래 B

소속기관

수정청소년수련관

제 안 자

고 진 원 진 한상미 문서영
임 설 임하늘 박은서 주수원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안전한 성남시 주·인·공 (주차공간 인in 공유어플)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 중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는 보통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이다. 이 시간대 골목길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양쪽 차도뿐 아니라 인도에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행안전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인해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가 폭 9m 미만의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발생해 하루 평균 2.5명이 사고, 사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도로 양쪽에 늘어선 주차 차량 때문에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인도가 막혀 차도로 내려왔을 때 갑자기 달려오는 자동차, 인도와 차도를 번갈아가면 귀가할 때는 정말 힘들 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 하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금광동과 은행동, 태평동, 신흥동 등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 골목길이 불법주차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저녁 9시 무렵 은행동 골목길을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이 인도로 걸어가기 힘들고, 횡단보도도 수월하게 건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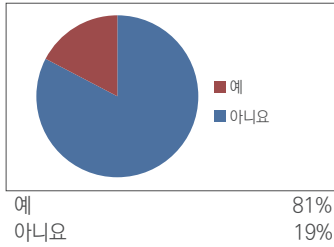
이렇듯 불법주차 차량으로 청소년들은 아찔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불법주차가 많은 이유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이 많으나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사용료, 접근성의 어려움, 입, 출차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주차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11명을 대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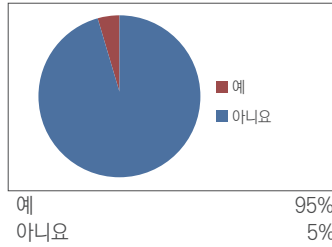
수정구 64%, 중원구 28%, 분당구 6%의 청소년이 답하였으며, 불법주차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81%가 경험한 적 있다. 라고 답하였다. 또한 성남시의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95%가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불법주차 해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93%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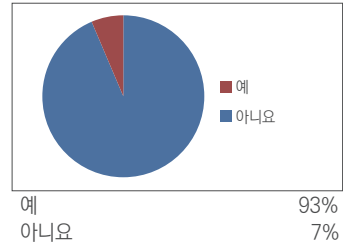
불법주차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성남시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불법주차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진 자료 : 은행동 골목길)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제안 1.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어플 시행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 대 같은 경로의 개인과 개인이 차량을 공유하여 이동하는 새로운 경제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는 카셰어링(쏘카), 하우스 셰어링(에어비앤비), 워크 셰어링 등 공유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림으로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유 경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공유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공간과 사회적 유대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기타 개인시설 등 야간이 되면 직원의 퇴근으로 빈 주차장이 된다. 이런 빈 주차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차 공간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성남시가 운영하는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어플 시행을 제안한다.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어플

- 주차공간 제공자(A)(공공기관, 사업자, 개인 등) : 공유 주차공간 현황 등록
- 성남시(B) : 공유 주차 공간 확보→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어플 시행
- 필요한 이용자(C) : 사전 신청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어플 사용법

- A는 주차장 위치, 공간크기, 주차가능대수,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를 지정, 등록한다.
- B는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어플을 제작, 관리, 운영한다.
- C는 개인정보(연락처), 차량정보, 이용시간(주차, 출차) 등을 신청, 사용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 시행 후 개선, 수정·보완한다.

주차공간 제공자에 대한 혜택

- 성남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 적용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 2. 무인시스템 이용 24시간 실시간 불법주차 단속 및 골목길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재 성남시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큰 도로에 주로 설치되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야간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법주차가 심각한 상태이다. 불법 주차가 많은 은행동, 상대원동, 금광동, 신흥동, 태평동 등 골목길에 무인시스템을 이용한 24시간 실시간 불법주차 단속 및 골목길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확실하게 해결하였으면 한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인도 도보를 통해 사람중심의 골목길을 만든다.

불법주차 예방과 문제 해결을 통해 차도와 인도의 역할이 분명해지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골목길 교통사고(특히 아동, 청소년, 노인 등)를 예방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골목길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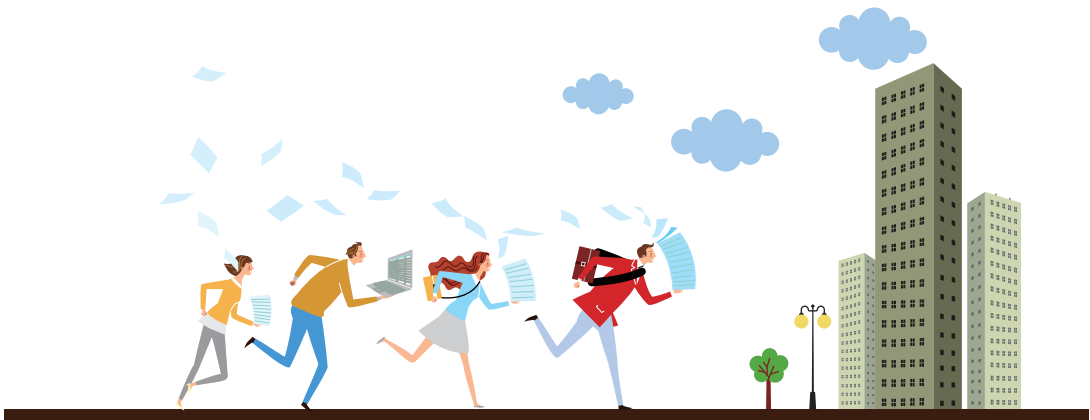
또한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같이 성남시에서도 큰 화재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동, 금광동처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주차로 인해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크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계 기관에서 아무리 소방차 진입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도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골목길 24시간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 원활한 대처가 이루어져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개념으로 성남시 공유경제를 활성화 및 높은 시민의식 함양

제4차 산업 관련 더불어 공유경제 사회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공유 경제란? 활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장소, 지식 등 유·무형을 상호 대여하거나 교환, 공유함으로써 상호 편익과 적정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또한 공유경제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나의 지역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남비주의를 벗어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토토가?

-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가온누리

소속기관

판교청소년수련관

제 안 자

김수민 김수민 김유빈 박다은 백다은
오희원 이선화 이재민 정주환 허지원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이걸 토토가?” -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친구 따라 호기심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청소년 도박은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다. 더욱이 “학생이 무슨 도박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스포츠 토토, 훌쩍,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이 사실은 청소년들은 알고 어른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1. 도박문제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상담자가 2014년 89명→2018년 663명

2015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1.1%가 도박중독 위험성이 높은 문제군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9.2%가 문제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들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청소년, 성인 모두 인식부족으로 예방교육 저조, 이에 대한 학교 및 가정의 대응 역량도 미흡한 실태이다.

2.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사행심으로 돈, 노동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 저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도박이 불법이 아닌 또래문화로 변질되어 그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죄의식 없이 도박에 빠져 쉽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실제 성남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인터뷰

· 대상 :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4명 · 방법 : 인터뷰 요원과 1:1 인터뷰 진행

1. 스포츠 토토, 훌쩍, 사다리 게임, 그래프타기 등의 게임을 접하게 된 경로가 무엇인가요?

강00 : 친구가 하게 되서 보고 같이 하게 됨 / 유00 : 갑자기 문득 떠올랐다

변00 :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 이00 : 친구가 하는걸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

2. 주위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00 : 학급 남자애들 모두가 접해봄 / 유00 : 10명중에 반 이상은 하는 중 이다.

변00 : 내가 아는 남자애들은 모두 하는 중 이다 / 이00 : 전에는 10명 넘었지만 지금은 7명 정도 하는 것 같다

3. 게임을 통해 얻고 잃은 금액이 얼마 인가요 ?

강00 : 얻은 것은 없고 이십 만원을 잃었다 / 유00 : 이득 없고 사십 만원을 잃었다

변00 : 번적도 있지만 통틀어서 30~40 정도 잃었다 / 이00 : 지금 현재는 10~20정도 벌었다



4. 게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강00 : 간편하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 유00 : 알바를 관두고 싶어서

변00 : 할 맘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들이 돈 벌기 좋다고 해서 / 이00 : 하다 보니 중독이 되어버렸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실태조사는 3년 단위 실시(2018년 11월 진행 예정)

청소년 불법 도박에 대한 설문조사

· 대상 : 성남시 중·고 청소년 175명 · 방법 : 설문조사

-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 39명(22%) 없다 : 136명(78%)

- 토트, 그래프타기, 달팽이, 홀짝 등의 게임을 들어본적이 있거나 해본적이 있습니까?

들어봤다 : 31명(18%) 직접해봤다 : 124명(71%) 들어본 적이 없다 : 20명(11%)

- 들어본적이 없다면, 만약 이 게임으로 주변 친구가 돈을 뒀다고 하면 해볼 의향이 있나요?

그렇 생각이 있다 : 11명(55%) 전혀 그렇지 생각이 없다 : 9명(45%)

- 직접 해본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하게 되었나요?

친구 또는 선후배 : 95명(77%) 광고 문자 : 10명(8%) 인터넷광고 : 19명(15%)

* 실제로 접해본 청소년들에게 돈을 잃거나 탄적이 있는지를 조사했을 때 돈을 따본적만 있다는 청소년들이 23명 이었으며 나머지 청소년 101명은 처음에는 몇 번 따긴 했지만 잃은 적이 더 많다고 응답했음.

3. 스마트폰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스포츠 토트, 홀짝, 달팽이 등 비교적 쉬운 게임으로 청소년들은 단순한 게임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치하는 경우 성인 도박 중독으로 계속 이어지는건 물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한 이유이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아프리카 TV, SNS, 친구 등을 주요 경로로 이야기했고 특히 SNS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명 페이스북 페이지와 구독자가 많은 SNS 채널의 댓글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실제 접한 친구들이 돈을 뒀을 경우 단톡방에서 돈을 뒀다는 것을 자랑하며 호기심에 접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아도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큰 어려움 없이 가입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회원가입은 5분 이내로 계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빠르고 간단한 절차들이었다.

4.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대상 도박 예방교육은 아직 저조하다. 현재 서울, 경남, 전북 교육청에서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대전과 대구는 발의, 경기도는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행중인 조례안의 대상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는 점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2018~2022)에서는 학생교육이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라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다.

교육현장에서 흡연, 음주, 약물중독은 예방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문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역별 센터를 운영하나 센터 수가 적으며 경기도 경우 경기북부센터(경기도 고양시 소재)와 경기남부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거나 중독되기 전에 도박의 확산과 청소년 도박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앞서 제기된 문제와 실태를 바탕으로 청소년도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과 정책을 찾아보게 되었으며 관련 시도조례를 조사한 결과 판교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는 청소년도박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정책적 측면의 방안으로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안 정책 :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목적 : 성남시는 시교육청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며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증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 학교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대상 : 성남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

○ 세부내용

※ 기존의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내용임.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남시에 주소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성남시장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② 시장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도박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③ 시장은 청소년 도박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온누리’가 생각하는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가의 피드백도 필요하며 추가로 작성되어야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완벽한 조례(안)은 아니지만 추가 조례(안)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꼭 담고 싶은 내용은 3가지이다.

1.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아직 청소년 도박 예방에 대한 정책은 많지 않다. 2017년부터 교육청 조례가 생겨나고 있으며 경기도도 준비 중 이지만 현재 교육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의 대상이 재학중인 학생에 국한되어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한다.

2. 도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 구성이 필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진행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횟수와 내용은 부족한점이 많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게임, 놀이가 아닌 위험한 놀이라는 교육이 필요하며. 게임 중독과는 다른 도박이라는 관점으로 내용 구성도 있어야한다. 횟수 또한 연1회가 아닌 상하반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사, 성인대상의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한다.



3. 조례안 제정 후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추진

홍보면에서도 도박에 대한 홍보는 있지만 청소년 대상의 홍보 매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설문했던 청소년들 중 경험하게된 경로가 친구, 선후배 그리고 온라인 매체들이 컸었다.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매체활용이 필요하며 홍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아직은 청소년이 무슨 도박이나, 도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도박 문제는 드러나는게 아니여서 더욱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청소년도박에 중독된 경우 일상에서 문제 행동과 폭력성을 띠기도 하며 심한 경우 폭력 등 사회 전반으로 표출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도박이 중독을 넘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생활에 가까이 다가온 청소년 도박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방교육은 저조하다.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현재 확산되고 있는 도박 폐해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부 방안들이 뻗어 나올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이 활발해 진다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노동의 가치관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은 물론 경제 교육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청소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 어른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을 받거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분위기가 된다면 청소년 도박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놀이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예방교육과 법적·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유관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통해 성남시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도적인 지원책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되었으면 한다.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은개비

소속기관

중원청소년수련관

제 안 자

한예림 김수영 강소은 구예림 김솔지
김태형 천수현 최이지 성현정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1. 문제제기

1-1 문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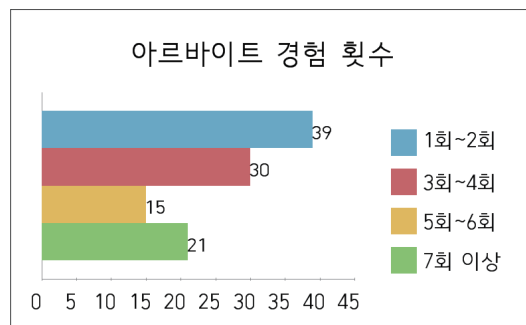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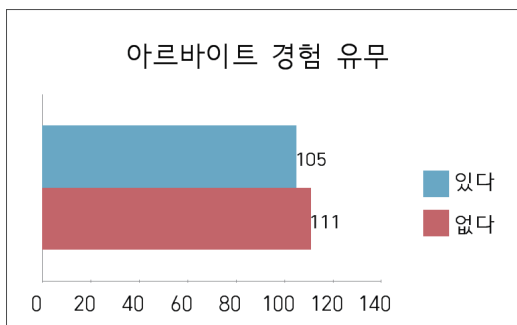
현재 중요한 지역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사례가 증가 하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다. 현 상황의 문제점으로는 노동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는 점과 성남시 내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없다는 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대우를 당했을 시의 대처 방법 및 절차 등의 기본적인 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안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노동인권 교육 또는 노동인권 강사를 초빙한 노동법 강의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조차도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지 못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기회도 부여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점점 더 노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노동 중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아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탐구를 시작했다.

1-2 실태조사

1-2. 1 2017 청소년 근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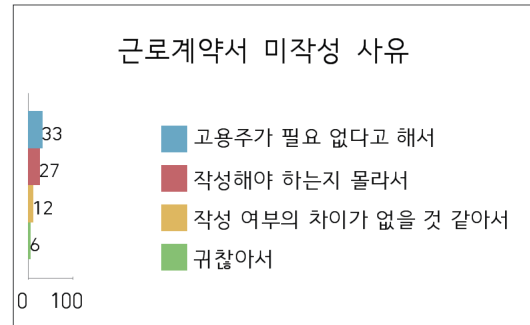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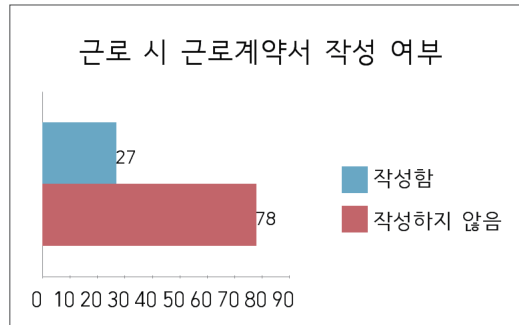
1-2. 1.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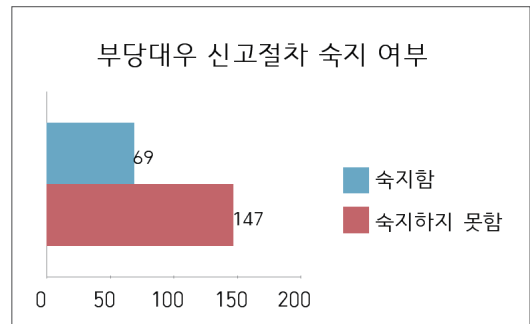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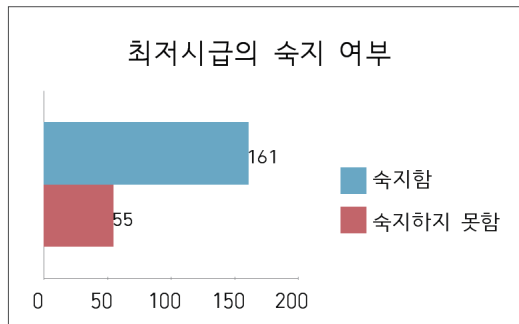


당시 설문 결과에 따르면 216명 중 105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는 항목에 따라 '1회~2회' 39명, '3회~4회' 30명, '5회~6회' 15명, '7회 이상' 21명이 응답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경험 횟수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2. 1.2 근로 전 숙지해야 하는 지식에 대한 청소년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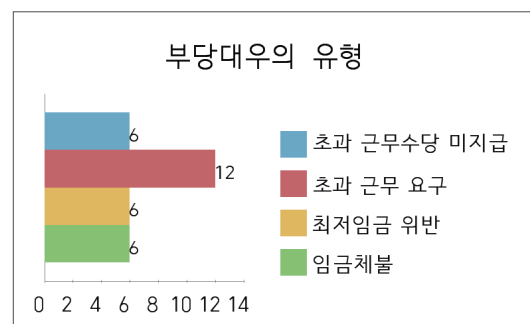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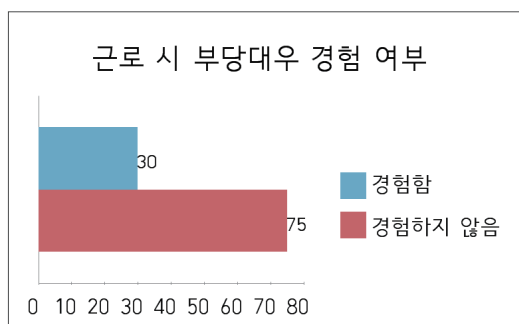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5명 중 7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고용주가 필요 없다고 해서' 33명,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27명, '작성 여부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2명, '귀찮아서' 6명이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높은 비율의 인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 표를 보면 최저시급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적지 않고, 부당대우 신고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3분의 2정도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종합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1-2. 1.3 아르바이트 시 부당대우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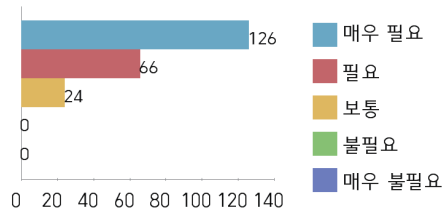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5명 중 30명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당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 유형은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6명 응답), '초과 근무 요구'(12명 응답), '최저임금 위반'(6명 응답), '임금체불'(6명 응답)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청소년이 많고, 그 유형은 금전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2. 1.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대상 청소년들의 응답을 보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혀 없었으며, 보통 수준 이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에게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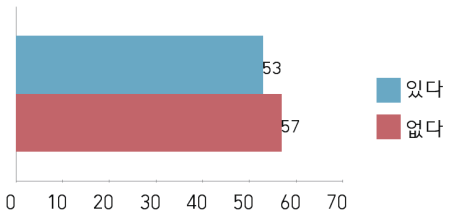


1-2. 2 2018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1-2. 2.1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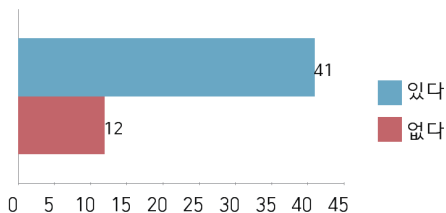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10명 중 53명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48.2%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1-2. 2.2 아르바이트 경험자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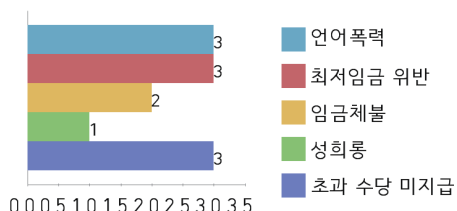
노동인권 침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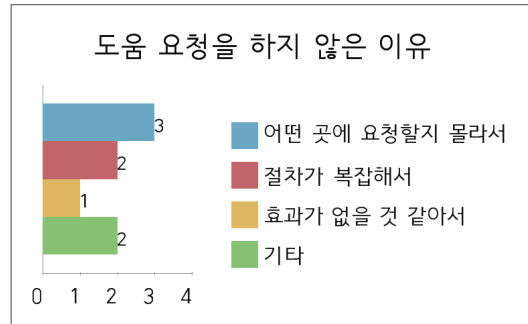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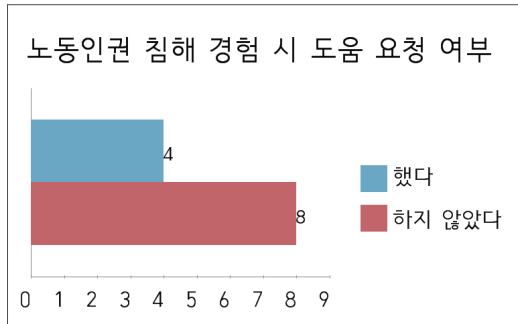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53명 중 12명이 노동인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항목에 따라 '언어폭력'과 '최저임금 위반', '초과 수당 미지급' 등을 각각 3명씩 선택했고, '임금 체불' 2명, '성희롱' 1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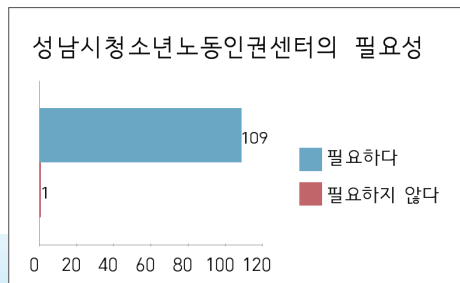
하지만 위 표를 보면 노동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청소년 노동자는 8명이었고, 항목에 따라 ‘어떤 곳에 요청할지 몰라서’와 ‘기타(고용주의 보복 우려, 귀찮아서 등)’이 각각 3명, ‘절차가 복잡해서’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각각 2명의 응답이 나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당비율의 청소년 근로자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받고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의 부재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룰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2. 2.3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바라는 점

2018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110명 중 109명의 청소년들이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될 시, 센터에 바라는 점을 알아본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노동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개최 등이 있었다. 이외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바라는 점	
청소년 상담 시스템의 활성화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
청소년 의견에 대한 관심	노동 교육의 활성화
노동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청소년들의 용이한 접근
노동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1.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립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센터의 설립을 내세우게 되었다.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과 상담 시스템 등을 운영한다면 더 나은 근로 환경 마련과 부당 대우의 빠른 처리 및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 방안

1) 고용주 피드백 제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고용주님께 할 말 있어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전에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이 본인을 고용했던 고용주에게 피드백을 올리게 한다. 또한 평가 척도를 도입해 고용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소년 노동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사업장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2) 고용주 교육프로그램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고용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추가수당 계산법, 휴일 제공 등)을 교육하여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고용주에게는 '착한 고용주 마크' 발급 및 홈페이지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장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3) 청소년 노동자 프로그램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성남시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찾아가 노동인권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노동과 관련된 간단한 상담을 해준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이나 캠프와 같은 단체 활동을 추가해서 청소년들이 노동교육 강의를 먼저 듣고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 정책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한다.

4) 청소년 노동자 개인관리서비스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한 서류(근로계약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관리서비스 시행해 제출된 서류의 아르바이트 일자에 맞추어 1:1로 상담을 한다. 상담을 통해 근로관련 지식 대화를 나눈 후 하루 동안 수행한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적으면 자동문자시스템으로 아르바이트 비용과 휴게시간 등을 계산해준다.

5) 청소년 노동자 상담 시스템

운영 요일 : 월요일 ~ 토요일

운영 시간 : 평일 10:00 ~ 18:00

토요일 10:00 ~ 15:00

상담 방법 : 직접방문 상담, SNS 상담, 전화 상담

[SNS메시지 상담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어플을 사용하여 플러스친구에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친구추가만 하면 채팅방에 키워드만 눌러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최저시급 미수금, 부당대우 신고 절차 모름, 신체적 희롱 등의 해당 답변을 센터에서 확인 후 바로 답변을 해주는 형식]

6) 고용주와 청소년 노동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고용주(자신의 사업체가 있고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와 청소년 노동자가 프로그램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꾼다. 이때 청소년 노동자에게는 사전에 고용주가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할 때 지켜야할 원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설명하는 방법 등등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숙지시키고 고용주와 청소년 노동자가 바뀌어서 청소년 노동자가 고용주인 사람에게 자신에 사업체를 소개하고 일을 시키기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험이 필요한 경우 보험 등의 가입 절차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 조항들을 잘 지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7)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단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기획할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단을 운영한다. 기획단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아래 운영되는 각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의 청소년 자치조직과 같이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한 달에 2회로 고정한다. 이들의 운영 목표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노동 축제’를 기획하는 것으로, 1년에 1회 또는 2회 청소년 노동 축제를 직접 기획해 청소년들이 노동인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원은 기획팀 및 홍보팀으로 나누어 각각 10명씩 총원 20명을 모집하며, 참여 혜택으로는 봉사시간 부여, 위촉장 수여 등이 있다.

8) 청소년 노동인권 UCC 공모전

성남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주제(부당대우 대처방법, 아르바이트 중 겪을 수 있는 일 등)를 가지고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참여 연령은 청소년기 가장 노동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이며, 인원은 1팀당 3인~6인으로 제한한다. 모집 방법은 관내 학교에 공문을 통한 홍보,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홍보물 게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 등이 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 청소년 노동자의 대우가 향상될 것이다.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고용주들에게 청소년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다.

■ 고용주들이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대우를 하게 될 것이다.

고용주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함으로 자신의 근로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우를 할 수 있고, 교육 인증서 발급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 고용주로 인해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당 대우를 받았을 시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 고용주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는 곳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성남시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화나 SNS 상담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하여 더 깊은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 노동인권이 보장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음식점, 전단지, 웨딩홀 서빙 등은 적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성남시 안에 청소년 노동자들을 직접 보호해주는 기관이 설립된다면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관리·해결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것이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로를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제대로 된 근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노동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여 근로할 때에 권익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원온도계”

온(溫)리(利)성남

소속기관

한솔고등학교

제 안 자

김세희 정다은 강지호 김나현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원온도계"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통념에 대해 그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연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님을 각인 시켜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문화 형성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회참여 동아리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다보니 학생들이 사회참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와 관련된 동아리 및 자율단체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금전문제입니다. 동아리의 경우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지 하지만, 학교차원의 예산으로는(예. 한솔고등학교 약 20만원) 청소년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사회참여 분야 관련 캠페인이나 활동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가령, 부족한 예산 때문에 학생들이 따로 돈을 모아 활동을 하거나, 아예 활동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솔고등학교 동아리로 예를 들어보면 저희 동아리인 소시오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타 사회참여 동아리나 그 외에 다른 동아리들은 예산부족이라는 한계로 사회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대차 재단처럼 기업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러한 시스템으로부터 금전적인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 후원 프로그램 자체도 적어 지원금을 받는 동아리는 극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고교 동아리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 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에 있어 금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청소년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아리의 특성상 사회참여활동이 학교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 외 차원의 사회참여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작년 8월, 저희 동아리 소시오는 '내 동생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하철 역 내부에 포스터를 부착하기 위해 여러 광공서와 전문 광고 업체에 꾸준히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며 거절하셨고 저희 역시 활동허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에 대해 저희는 고교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한다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청소년들에게는 응원이 되어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 더욱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후원온도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후원온도계 제도입니다. 먼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참여란 직접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고자 진행하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예술 동아리가 사회 기부금을 모을 목적으로 팔찌, 배지 등을 제작하는 활동, 영상동아리가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후원온도계 제도란, 기업들이 고등학교 동아리 및 자율단체에 후원을 했을 때, 후원 빈도수와 금액에 비례하여 기업 온도계의 온도를 상승시켜 이들의 후원등급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운영방식 및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온도계' 포털사이트 운영

'후원온도계'라는 이름의 포털사이트를 운영체로 해서 청소년 동아리 및 자율단체와 기업이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동아리 및 청소년 단체에 대한 기업의 예산 후원은 이 사이트 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 역시도 가입을 가능하게 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과 기업들의 후원 현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기업단위로 개별 운영되었던 동아리 후원제도(예. 현대차 정몽구재단 동아리 후원사업)를 한 포털사이트로 엮어 동일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후원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여러 동아리 및 청소년 자율 단체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만큼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접할 수 있고 기업에 의한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후원의 분야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2) 시스템 운영계획 [그림1,2첨부]

기업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자신들의 최근 성과를 문서 및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기업별 '프로필'에 게재한다.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나 기업단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기업 프로필 창에서 기업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동아리의 1년 활동계획표를 전송하고, 기업이 이를 승낙하면 후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후원금액: 50만원~ 200만원 내). 한 동아리가 3개 이하의 기업으로부터만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여 청소년과 기업 사이에 큰돈이 오고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동아리는 연말 1년 동안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후원받은 기업에게 전송하고 동아리별 프로필에도 게재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한 "후원온도계"라는 정책의 이름에 걸맞게 기업의 프로필에 온도계 위젯을 마련한다. 온도계의 온도는 기업의 후원 빈도수와 금액을 반영해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각 기업이 얼마나 후원온도계 제도를 잘 펼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3) '호감 표시제' 도입 [그림2,3첨부]

사회참여 활동은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이므로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트 내에서 청소년 단체는 자신의 1년 활동계획을 문서형식으로 작성하여 동아리별 '프로필'에 공개하고 이 단체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동아리별 프로필 옆에 응원과 관심의 뜻의 '호감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과 시민의 호감 표시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활동 및 동아리 홍보 효과를 발생시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며, 기업들은 호감표시를 반영하여 후원의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호감표시'제를 통해 타 동아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감표시와 더불어 댓글란을 마련하여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은 활동 준비 과정에서 동아리와 시민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더 나은 활동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는 사회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1	한솔 소시오	LG님 외 24,568
2	A고 아람	삼성님 외 20,564
3	B고 시나브로	현대님 외 18,772
4	C고 모도리	GS님 외 14,335
5	D고 돌돌별	롯데님 외 12,766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사회참여는 청소년들이 일찍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에 그 장점 또한 분명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진행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한 예산, 참여 기회 제한 등 여러 한계들이 이들의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나온 후원 온도계 정책이 이러한 한계점들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원온도계 제도를 도입하면 먼저, 고교 동아리 및 청소년 자율단체 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 폭넓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소속 동아리들은 학교로부터 받는 예산을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지만, 학교 차원의 예산을 고려하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고교 동아리 및 청소년 자율단체에게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후원 온도계 정책은 그들의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고, 금전적인 제약을 최소화 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아리들의 활동 의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의 후원은 곧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아리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계획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후원 외에도 기업들이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응원한다는 의미의 '호감표시'는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더욱 활발히 만들고 동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지원 덕택에 성공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친 동아리들을 선두로 다른 동아리들이 이를 참고해 서로 보다 노력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기업들의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보다 넓은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되고, 기업들은 후원을 통해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쌓고 이것을 바탕으로 더욱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원온도계 제도가 청소년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다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렇게 후원 온도계 정책은 동아리와 청소년 자율 단체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자극하고 기업들의 윤리적 경영을 이끌어 성남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어 성남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즉 후원 온도계를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이 곧 사회의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청소년은 그저 성숙하지 않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기회를 박탈당해 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청소년들은 그 박탈당한 기회를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참여할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되며 후원 온도계 정책의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참여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저희가 제시한 후원 온도계 정책이 꼭 실현되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큰 기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그 곳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

꿈 나르샤

소속기관

중원청소년수련관

제 안 자

이정현 최진수 윤성민 이준혁 김나영
이고운 유민영 김동규 이정련 이승민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학교 통폐합, 그 곳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

대학생 진로멘토단

꿈나-2사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에 따라 매년 학교 입학자 수가 점점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성남시에서 오랜 시간 남중 남고로 있던 풍생중학교, 풍생고등학교는 공학으로 2019년부터 바뀌게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통폐합 학교로는 2년전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의 통폐합이 있습니다. 학교의 빈 자리에는 2019년,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통폐합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기존의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상해주고, 원래의 아이들이 사용하던 자리였던 곳이기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 문화 시설'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뒷받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아이들의 공간 제공 필요.

최근 2014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보내는 여가 활용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TV 및 DVD 시청(61.4%)'과 '컴퓨터 게임(48.7%)'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인터넷 이용률 또한 높아져, 10대 아동의 95.8%가 하루에 1회 이상 하루 평균 2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아동들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스마트폰으로 '채팅(26.7%)'과 '게임(15.6%)'을 가장 많이 했고, 다음으로 '전화 통화(14.8%)', '음악 듣기(12.8%)' 등을 즐겨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은 주중에 55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98분에 달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마땅한 놀이 공간이 없으니 아이들은 상업적인 시설을 찾거나 유해환경을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종합 실태조사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지금까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업소는 '노래방(90.9%)'이 가장 높았고 'PC방(85.8%)', '전자오락실(60.0%)', '만화방(29.9%)'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멀티방·룸카페 이용' 경험률이 24.4%에 달했고, 심지어 '성인용 주점'도 13.8%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청소년이 출입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장소까지 무분별하게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처럼 한정적인 놀이와 여가 방법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14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놀이와 여가 방법 중 바뀌어 할 점을 물었더니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감소"가 28.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체 활동 증가(22.2%)", "놀이와 여가 시간 관리(18%)", "바깥놀이 증가(17.7%)"의 순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막상 미디어와 상업시설에서 벗어나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여가를 즐기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출처]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놀이 문화의 실태와 함께 청소년 아이들의 문화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① 빠른 변화를 선호하고 또 변화에 잘 적응함.
- ② 기성 세대의 문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함.
- ③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에 소비 활동의 비중은 크다.
- ④ 하나의 하위 문화로서 전체 문화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전체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함.

또한 청소년 놀이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성인의 놀이 문화의 차이는 선택 가능성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오락의 종류에 제한이 많다.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전자오락의 경우도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종류가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오락을 즐기는 데 드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가의 차이이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용돈의 사용 범위가 좁다. 청소년의 놀이 문화에 이처럼 제약이 따르다 보니 성인 놀이 문화의 장으로 청소년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 문화

빠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돈이나 신분으로 놀이에 제약을 받는 아이들은 이런 제약에 오히려 저항하려는 모습도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처해지는 것을 막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 청소년 놀이 문화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중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약 5년 전 아이들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방문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1층에 풋볼과 pc, 몇몇 보드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지만 현재는 그 공간이 '꿈드림 공방'이라는 카페로 이용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성남시에서 사라져 가는 아이들의 문화 시설들, 현재 더욱 필요한 시설이 바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고 능동적인 놀이 및 여가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도성, 자신감 등을 심어줄 수 있고, 사회 및 교육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이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청소년 문화 센터

현재 성남시에 존재하는 ‘청소년 수련관’ 과 ‘문화의 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곳은 성남시 중동에 위치한 문화의 집이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의 4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용성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는 지하철역에서도 많이 떨어져있고 버스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자가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언덕에 있으며 차로도 이동이 쉽지 않은 동네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고, 2019년에 완공예정인 아담청소년수련관은 더더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주변 주민들의 이용만 쉬울 뿐 같은 동네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마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합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학교가 위치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학교가 있던 자리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 센터가 생긴다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3



■ 수정청소년수련관
역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며 언덕에 위치하며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

■ 야탑청소년수련관
2019년에 완공예정 야탑청소년수련관. 역에서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주거 지역 내부에 있어 주변 주민들의 접근만 쉽다.

3.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활동의 장소의 부족

현재 성남시에는 수내역 'JOB WORLD'라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되는 대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청소년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후기 청소년 즉 만 19세 ~ 만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취직 또는 창업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청년취업률은 42.9%에 그치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실업률은 2008년 7.4%에서 2011년 8.7%, 2014년 10.2%, 2017년 11.3%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후기 청소년들을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박람회,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활동의 장소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센터 및 진로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면 실제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도 수원 청개구리 연못이라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서도 후기 청소년들을 위한 job카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 듯 다양한 지자체에서 청소년에게 진로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현재 학교가 위치한 곳은 접근성이 용이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참고자료 4 20대 청년 실업을 및 취업 동향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1. JOB center

참고자료 5



청소년진로체험활동



취업 박람회

〈운영 방안〉

[후기 청소년들 대상]

1) 취업&창업 공간 제공

- 20대 청소년들 중 창업에 도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업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창업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2) job cafe

- 취업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역량 및 알맞은 직무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취업에 대한 정보 및 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3) 기업 인턴십

- 성남시에 있는 기업과 연결해 인턴 활동의 기회를 2개월 - 6개월 단위로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고 직무관련 실습을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한다.
- 성남시에 일자리가 부족한 곳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하다.

4) 면접 복장 제공

- 당장 정장을 살 돈이 없는데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가 잡힌 경우 정장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 대상]

1) 청소년 진로 체험

- 다양한 직무마다 체험활동을 열어 각 학교의 창의적 진로활동 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정책을 세운다.
- 초, 중, 고 학생들마다 각 수준에 맞는 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2) 학과 (전공) 멘토링

기존에 많은 직업인 멘토링보다는 그 이전 단계인 대학 전공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실제로 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공 멘토링을 통해 학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한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2. 청소년 문화 공간

1) 카페 운영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는 비용이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비싼 편이다. 센터 안에 카페를 만들어서 무료로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무료가 어렵다면 1,000원 이하의 비용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들에게 받은 비용은 청소년장학금 등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

2) 스포츠 활동 공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지난 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놀이와 여가 방법 중 바꿔야 할 점을 물었더니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감소”가 28.2%, 그 다음으로는 “신체 활동 증가(22.2%)”, “놀이와 여가 시간 관리(18%)”, “바깥놀이 증가(17.7%)”의 순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내뿜지 못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방출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스포츠 활동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더불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3) PC 이용실

pc방을 가지 않고 ‘청소년 문화 시설’에서 이용하도록 하여 유해시설에서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고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한 곳에서 놀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시간제한을 두어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PC 이용에 활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한다.

기존 PC방의 경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방과후에는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PC 이용실을 제공한다.

4) 도서관 및 열람실 제공

삼성역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과 같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예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기존 도서관의 열람실 부족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열람실을 조성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이 부족하지 않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무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공실이 없도록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추가 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건물과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과 같은 관공서느낌의 딱딱한 공간이 아닌 사전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고 오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참여율과 이용률을 높힐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만드는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 조성 사전에 청소년들의 운영진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청소년들의 원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청소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더 많은 확대 운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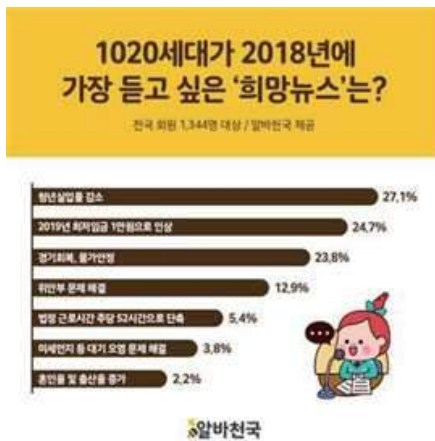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 청소년 진로 교육의 대표 도시 '성남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교육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진로교육'을 매우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삶보다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한다.'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국가의 교육체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고, 국가차원에서는 각 분야별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성남시에서도 '청소년 문화 센터'를 통해 놀이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증폭시켰으면 합니다. 기존에도 청소년 교육부분에서 무상 급식,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육비 무상 등의 활동을 진행해온 성남시로서 이번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정말 아이들의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과 근접한 위치에 아이들 교육체계까지 완벽한 도시라면 가족구성원에 아이들이 있는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을 상승



참고자료 6 희망뉴스 설문조사

작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20세대가 가장 듣고 싶은 '희망 뉴스'로 청년실업률이 뽑혔습니다. 현재까지도 청년실업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취업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성남시에서 후기청소년들에게 진로활동의 장소를 제공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 및 다양한 청년들의 구직·취직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센터 자체 내에서 성남 시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계프로젝트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양복제공 등 취직에 필요한 복장 및 용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은 금전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 준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후기청소년 일자리 센터가 정착된다면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활동에 효과적으로 작 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취업을 상승이라는 청년들의 꿈에 작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 형성

'청소년 문화 센터'에서 청소년 아이들의 여가 활동을 보장해주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업적 시설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아이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해 억누르고 있던 활동에너지를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더불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 건전한 놀이 문화가 형성된다면 성남시 내에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어 기존의 청소년 문화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나 정부에서 더욱 권장하고 노력해야할 부분이 될 것이다.



학플리

(학교 플레이 리스트; 학생들이 1000% 만족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하여)

1000%



소속기관

한솔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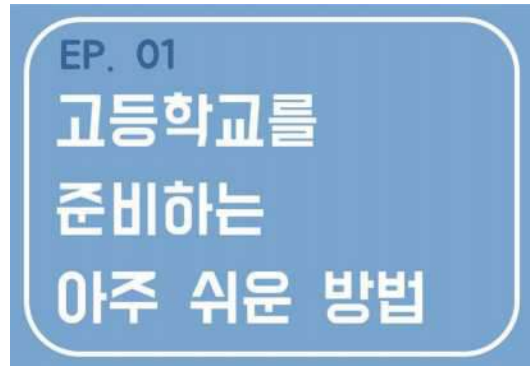
제 안 자

김민정 강민재 김유빈 문희주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학플리(학교 플레이 리스트: 학생들이 1000% 만족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하여)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성남시, 특히 저희가 거주하는 분당구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마저도 매우 중시하는데, 사실상 고입 정보가 특목고 (+특성화고)외에는 많이 부족하여 일반고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은 고입 시 지망원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중학교 측에서는 매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입시전형을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하고 중학교 교사들이 직접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측에서는 각 학교별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여 지역 내의 중학교에 배부하고, 입시설명회를 진행하여 각각의 장점과 추진하는 목표 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장단점에 관해 파악하기 어려워,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맞추어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주로 주변의 아는 선배 등의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학원의 고입 설명회 등의 방법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주위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인맥이라는 주관적인 통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원의 고입 설명회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며 평균 성적이 높은 학교 외에는 언급을 하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고입정보포털은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각 지역별 소수의 과목 중점학교만을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팀 민재의 경우에는 먼저 고입을 준비한 형제나, 주위의 선배가 없어 조언을 구할 방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친구의 학원에 설명회를 들으러 갔음에도 민재가 궁금한 학교의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팀 유빈이의 경우에는 특목고 입시에서 불합격을 하고 일반고 고입을 준비하느라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고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미 상당수의 설명회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설명회도 대부분 시간이 안 맞아 부모님께서 가져다주시는 팜플렛이나 설명으로만 정보를 충당해야 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고안한 '학플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1. 학교별 홍보단 조직

첫 번째 방안으로 학교별 홍보단 조직이 있습니다.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고등학교별 출신중학교 학생 위주로 선발된 홍보단이 일반고 고입을 준비하는 각 중학교 학생들을 방문하여 학교홍보와 질문을 받는 식의 방문형 설명회입니다. 한 고등학교 내에서 중학교별로 1, 2학년을 적절히 배치해 2~4명을 선발합니다.

기 간	추진일정
9월	성남시청(또는 경기도 교육청) 책임 하에 각 중학교별로 어떤 고등학교의 홍보단 방문을 원하는지 설문조사 후 성남시청(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단 제작, 각 고등학교로 명단 넘기기.
10월	(각 고등학교 별로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학생회 또는 교무기획부에서 지도 하에 홍보단 모집, 선정.
10월	홍보단은 방송부로부 터 홍보영상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방문 준비.
10월 마지막 주 원서내기 전 주	홍보단 방문(성남시청 또는 경기도교육청 주도 하에 일정 안 겹치도록 미리 연락하여 일정 조정.)
12월 ~ 2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 통지 이후) 홍보단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각 중학교는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성남시청(또는 경기도 교육청)에 넘깁니다. 성남시청은 결과를 각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그를 바탕으로 각 고등학교는 홍보단의 개선을, 성남시청(또는 경기도 교육청)은 제도 전체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단 선발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라는 혜택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또한 활발해질 것입니다.

2. 학교별 홍보 영상 제작, 보급 및 활성화

두 번째 해결책인 학교별 홍보 영상 제작 및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3~8월에 주로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별로 대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SNS 계정을 만들어, 이후 부가 영상을 차츰 업로드하며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영상 제작은 각 고등학교 방송부 담당, 홍보는 학교와 학생회의 지원 하에 진행합니다. 영상 홍보를 위한 고등학교별 페이스북 페이지나 유튜브 계정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학생회에서 주도하도록 합니다. 3~8월에 제작된 학교별 대표홍보영상은 홍보단 방문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후 학교 주최 설명회 또는 행사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정 행사 등의 부가 영상은 언제나, 누구든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SNS 계정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3. 지역 내 고교입시 엑스포 개최

다음은 지역 내의 학교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며 알아볼 수 있는 고교입시 엑스포 개최에 관한 제안입니다. 고교입시 엑스포란 기존의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각 학교별로 홍보부스를 통하여 각 학교의 대입전략이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박람회입니다.

이는 성남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박람회로서, 매년 5월에 준비에 들어가 8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각 고등학교의 입시담당부서와 재학생이 협력하여 각 학교가 추진하는 특화 프로그램과 그에 맞추어 진행되는 교육과정과, 교내 수행평가 및 대회 산출물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내용 1번의 홍보단과 제안내용 4번의 Q&A 시스템을 박람회에서 홍보함으로써 학생들이 고교입시를 준비하는 데에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볼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고교입시 엑스포는 한 곳에서 여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특정 학교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4. 1:1 재학생 질문과 답변 시스템

마지막은 제안 내용 1번(학교별 홍보단 방문)의 보완책인 1:1 멘토 질문과 답변 시스템 개설 및 고입정보포털의 배너 개제입니다. 학교별 홍보단 방문 과정에서 방문을 원하는 고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선정된 학교 외 다른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설명회를 진행하더라도 시간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나온 보완책이 바로 1:1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각 중학교에서는 홍보단 방문이 예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학생들 중 멘토링 신청자를 받고,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멘토를 자원 받아 멘토들의 출신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1:1 매치를 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간적 제약을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입정보포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 배너를 개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의 첫걸음이 되는 고등학교 선택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한 탓에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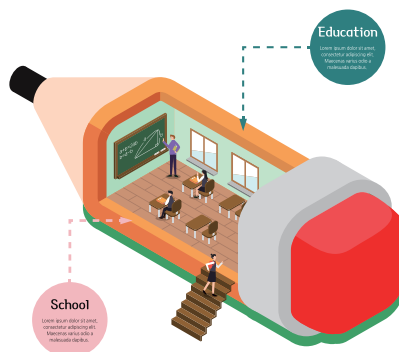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학플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별 홍보단의 조직을 통해 학생들은 재학생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 수 있고 재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학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 홍보 영상을 이용하여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은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자신의 성향이 맞는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내 고교 입시 엑스포를 통해서 지역의 고등학교를 한 번에 알아보고 비교하며, 각 학교의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비교를 통해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고안한 이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은 원하는 정보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받고, 현실적이고 생생한 조언과 설명을 들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능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성공적인 고교 입시 결과를 내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더불어 학교 측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는 특목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 국한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제한되었던 기존과는 달리 일반고등학교까지 확장된다면 학생들이 고입 지망 원서를 작성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안한 '학플리'는 학생들의 후회 없는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청소년 문화혁신 위원회



소속기관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제 안 자

박진우 남정환 노지수 전지윤
이다운 이민진 이가빈 장미소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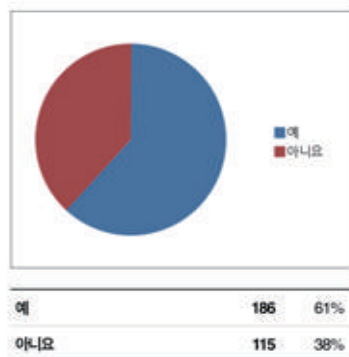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1. 자유학기제, 시기의 부적절성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학업/진로 영역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상담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업/진로 문제가 대인관계(23%)에 이어 21.3%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학업/진로에 관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집중교육이 고등학생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본 제안을 위해 실시한 “얘들아, 직업이 갖고 싶니?” 설문조사(2018.10.20.~10.23, 성남시 고등학생 총 301명 대상)결과에 의하면, 확실한 자기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주 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40%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현재 진로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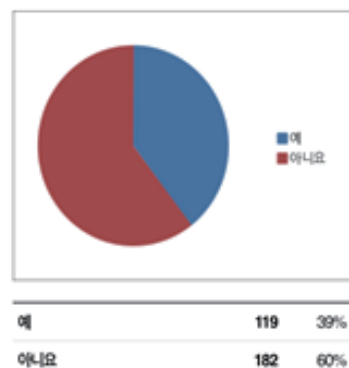
2.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한계

많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들은 그 시기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위주로 체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뿐 아니라 인기 있는 체험은 경쟁이 치열해 관심이 전혀 없는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 미래의 직업은 새로워지고,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는 학생들이마다 다양한데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진로교육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수업이 따로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현재 진로 수업시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질문에 약 62%의 학생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약 50%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을 준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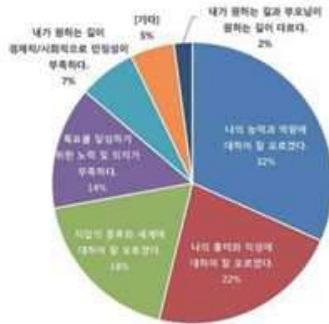
현재 진로 수업 시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취업준비 시기, 진로 결정 / 선택의 어려움

진로 결정/선택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응답수	비율
나의 능력과 적성에 대학에 갈 요르겠다	1313	31.7%
나의 흥미와 적성에 대학에 갈 요르겠다	915	22.1%
직업의 종류와 세계에 대학에 갈 요르겠다	758	18.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및 의지가 부족하다	564	14.1%
내가 원하는 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부족하다	273	6.6%
기타	209	5.0%
내가 원하는 길이 부모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	88	2.1%
총합계	4140	

중앙대학교 재학생 4140명을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취업·진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10명 중 9명이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모르거나 (1313명, 31.7%)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913명, 22.1%)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 후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진로 적성을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학기 말 학생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필요

2차 지필평가(기말고사)가 끝난 이후 학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이 대다수이다. 1학기 2차 지필평가 이후에는 약 15일~20일의 시간이 있고, 2학기 2차 지필평가 이후에는 약 20일~30일의 시간이 있다. 보통의 고등학교에서는 이시기 대체로 영상물을 보거나 자유 시간을 보내거나 자습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이 시간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자유학기제, 시기의 부적절성',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한계',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 선택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진로 교육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이다. 우리는 고등학교시기 진로/적성을 찾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학기 말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이른바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는 진로 특별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미래 사회에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진로를 설정해주기 위해서 지역(성남시), 학교 그리고 기업이 다함께 참여하여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 설정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 대상 : 성남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2 학년
- 시기 : 매 학기말 2차 지필평가 이후 1학기 약 15 ~ 20 일 / 2학기 약 20 ~ 30일
- 방법 : 1학년 1학기 - '진로 적성검사, 내·친·소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일주일 한 줄 일기'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 강점 등 자아탐구활동을 진행한다.

1학년 2학기 - 1학기 자아탐구활동을 바탕으로 모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My Potential Contest>를 열어 시상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며, 좋은 사례로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2학년 1학기 - 1학년 때 진행한 자아탐구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학기 때 진행할 진로 체험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2학기 계획서를 세운다.

2학년 2학기 - 학생들은 직접 기업에 가서 실질적인 교육 체험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3EC - Effective Education Experience Contest>를 통해 평가하여 모범 사례로 해당하는 학생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특징 -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 같은 시간 엄수, 회사에서의 예의범절, 근무태도들에 관한 사항들을 교육 받고 난 후 실질적인 근무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기업 지정 방식

- 공기업 및 위탁기업은 기업 내부 상태를 파악하여 시청에서 지정한다.
- 자영업자는 매장 상태와 고객 평가서 등을 시청에 제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청에서 평가 후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의 기업으로 지정한다.

● 사업장주의 평가 사항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 및 근무 완성을 평가한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진로 활동란에 기재한다.

이 정책이 기존의 위탁 교육과 다른 점은 기술직 관련 직업들에 대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였다는 점, 더 많은 직업군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 이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라는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주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본다면, 시에서 꼭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 자유학기제 시기의 문제점 보완

현 고등학생들 중 정확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 수 있으며, 만일 자신의 진로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 진로와 맞는지와 같은 적합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힘들고, 실제 그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매우 제한적이다. 고등학교 때 자아탐구, 사회의 교육을 직접 받음으로써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확립할 수 있고, 진로와 관련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

■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확립

자유학기말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흥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진로와의 적합성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진로 결정 또는 직업 결정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성적이 아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서 전문성, 능력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성남시) 그리고 학교까지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의 구성 단계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직업 사회의 참여

학교에서 받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예절교육·시간교육·안전교육 등 여러 교육들을 받게 되고, 작은 사회인 학교 내부에서 벗어나 큰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학교에서 만져보기 어려운 장비들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곧 사회에 나가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될 잠재적인 근로 인구들이다. 그런데, 현재 이들은 한정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어 미래에 맞는 다양한 직업군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서 미래형 인재에 걸맞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진로 수업의 질 향상

수업시간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2차 지필평가 이후 대체로 영상물 및 자유 시간을 보내거나 과목 수업이 아닌 자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시간을 의미 없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이 시간동안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실시할 시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도 자신만의 진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업의 참여도 역시 높아져 능동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의견 수렴함(청소년 신문고)를 만들어주세요.

티모테 (티끌 모아 태산)

소속기관

정자중학교

제 안 자

강민재 심준보 이승빈
이시현 허 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청소년 의견 수렴함(청소년 신문고)를 만들자.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복지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창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홍보가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남시에서는 2015년 7월에 청소년 행복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행복의회는 의회의 의견이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에 반영되고, 제7회 전국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 대회에서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팀에서 정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총 105명에게 3일간 투표형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청소년 행복의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학생은 단지 약 5% (105명 중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 학생은 약 54% (105명 중 57명)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 제 1장 제 5조의 2의 제 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행복의회와 같은 청소년 의견수렴 시설을 설치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 행복의회를 알고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에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 학생이 전체 설문조사자의 반 이상인 약 54%인 것을 보아, 성남시의 청소년들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표출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에서는 일부 청소년들의 의견이 아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성남시의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저희 팀은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심도있게 들어주고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곧 사회에 나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이자, 창의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성남시 청소년 신문고를 설치해 이곳에 청소년들이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 2가지로 나누어 제안 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온라인상 청소년 신문고 설치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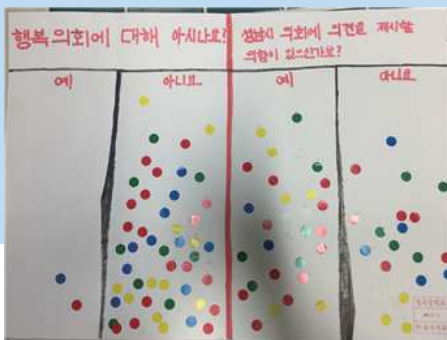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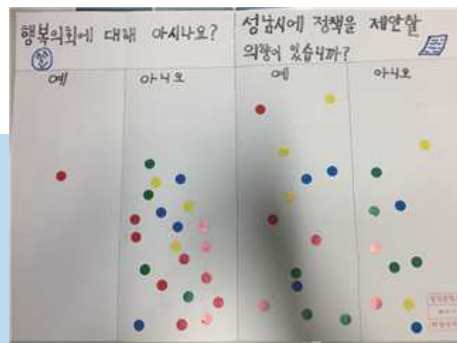
이 정책을 위해서는 성남시가 '성남시 청소년 신문고' 라는 사이트를 따로 만들거나, 성남시청 사이트, 성남교육지원청 사이트,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이트에 청소년 신문고를 두어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친숙한 온라인 청소년 신문고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악플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정책을 실행할 때 온라인의 성남시 청소년 신문고를 실명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의견은 하나의 의견에 통합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인 의견은 덧붙일 수 있도록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같이 공감 버튼과 댓글 기능 등을 달고, 비속어 필터를 다는 등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친숙한 형태의 신문고를 만들어 참여율을 더욱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행복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 정자중학교에서는 학생회가 학생 신문고를 만들어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 신문고에서는 성남시에 제안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학생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들을 성남시에 제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학생회 활동을 직접 해보며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생회와 청소년 행복의회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행복의회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먼저 청소년 행복의회 고충처리위원회와 각 학교 학생회 대표 1명씩 가입되어 있는 카페를 만들어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쉽게 청소년 행복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신문고에 제시된 의견들 중 선별된 의견들을 주제로 하여 보완하고 수정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여, 완성되어 건의되는 정책이 조금 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한참동안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의 출소. 이는 국민청원에도 올라올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민청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기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조두순 출소에 관련된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도 조국 민정수석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이 나오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제안한 사람과 동의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니, 기분이 좋을 것이고, 더욱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같은 국가의 각 부처들도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제안했었던, 청소년 신문고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어른들입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대한민국의 정치에 자신의 좋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자신의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는 좋은 정치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청원을 올리기 전에는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제도와 같은 것을 스스로 배우게 되고 이는 좋은 정치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의견을 표출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시민으로써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반영을 통한 사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성남시의 정책이 된다면, 더욱 청소년들의 사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이런 심리는 지속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 신뢰도가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소년 신문고를 통해 성남시의 청소년들은 더욱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미래에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민들의 사회 참여도 더욱 활발해져, 시민과 더욱더 소통하는, 시민이 더욱 행복한 성남이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너나들이



소속기관

성남시청소년재단

제 안 자

김수진 최윤석 최예슬
민예원 방여림 김시은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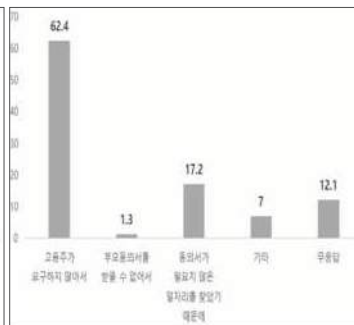
“말도 없이 매일 열시 넘어서까지 일 시켜서 그만뒀더니 사장님이 저 고소한데요...”

얼마 전 참여한 제 1회 청소년노동인권박람회에서 들었던 한 청소년의 고민이었다. 듣자마자 요즘에도 아르바이트 생한테 갑질을 하는 사장님이 아직까지 있나하고 화가 났다. 당연하게도(?) 그 곳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만약 정말로 고소를 한다면 고용주 쪽에서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사장님이 정말 무지하다고 생각했다. 학교나 학교 밖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은 이렇게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고용주들의 노동인권 교육”은 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청소년이 주장하는 노동인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장님들, 즉 노동인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고용주들이 많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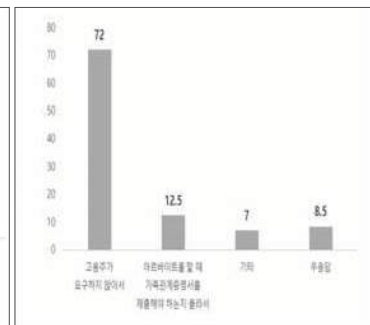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 2017년도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특성화고등학교생 대상)’에 따르면, 노동인권 교육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부재하지 않은 상황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정보의 부재를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 계약 관련해서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아서’의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림2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그림29〉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그림31〉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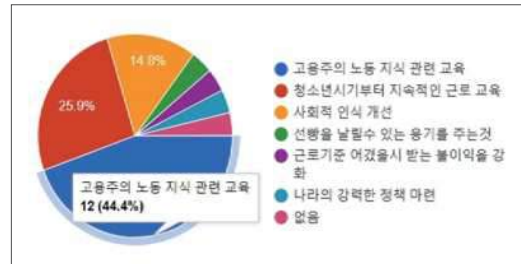
이러한 원인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매우 제한적이며, 노동자본 아니라 고용자의 인식 변화와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연령이 어리고, 계약 관계상 ‘을’의 위치에 놓이는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며, 노동 현장에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2018.10. 진행)에서도 개인의 노동관련 지식보다 고용주의 노동관련 지식이 부족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고용주의 노동지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2-1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8개



[2-2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7개

따라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실제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주들에 대한 교육방안과 인식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노동인권교육·청소년 노동은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노동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는 성남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인권을 알려주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Right! Rights!>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교육 이외의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박람회(알쓸신동)를 통해 박람회와 같은 새로운 방향의 활동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고용주 교육의 일부 해당되는 아르바이트생, 회사원, 고용주 등 수요자별 10명 이상 노동교육을 원하는 그룹에게 공인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는 '맞춤형 노동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 청소년의 57.8%가 노동 인권 교육 경험이 있으며, 정상적 노동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62.4%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정상적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28.6%에 그친다는 타 기관의 선행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다(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7).

이미 우리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용주 노동교육'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당한 노동을 위해 노력하는 성남시의 발자취에 맞춰 '자기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키자'라는 청소년 노동교육 보다는 '법을 몰랐다'라고 변명하는 고용주들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고용주 노동교육 의무화'라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처음부터 고용주 대상 노동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은 최저시급이 매년 오르는 것만큼 고용주들의 반발이 크게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일정 시간 이상 노동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거나 어길 경우 임금 체불을 처벌하듯 과태료를 매기거나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의 법안이 생성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의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고용주들 스스로 그러한 법안에 호의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의 목표이다. 이러한 고용주 의무노동교육 인식개선 프로젝트는 이미 노동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며,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 성남시가 시작함으로써 점차 전국적으로 고용주 노동교육 의무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4단계 프로젝트>

1단계, 고용주들 스스로 노동인권 알기 “착한 사장님 서치(searching) 프로젝트”

#찾았다 #착한사장님 #장소 #누구 #왜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해시태그를 통해 SNS에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 중 가장 노동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 사장님을 추천하는 것이다. 성남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모든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추천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에게 노동인권을 잘 지킬 수 있게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취지이다. 2019년도 1년을 시범기간으로 잡고, 이후 이러한 문화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퍼지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착한 사장님 검증은 '성남시 노동인권 검증단'이 할 것이다(아래참고). 검증을 통해 착한 사장님이 인증되면, 착한 사장님을 추천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최저시급의 10배를 받게 되고 사장님은 '이 사업장은 노동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와 같은 인증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하루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성남시 노동인권 검증단 : 성.노.단]

모집 시기 : 매년 말, 1년제

대상 : 대학생 50%, 중고등학생 50% 으로 총 100명

활동내용 : 불시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업장에 찾아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은 만들어진 검증단들과 의논을 통해 만들어 갈 것이며, 주기적으로 성남시에서 고용주 노동인권 관련 서포터즈 활동을 겸해야 한다.

2단계, 착한 사장님 홍보하기

언론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을 홍보한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장님은 드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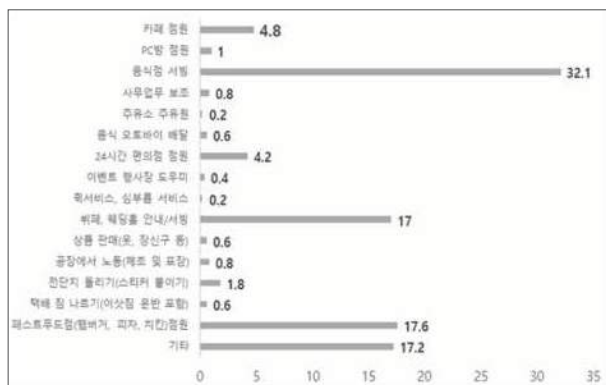
1단계 '착한 사장님 서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노동 교육을 잘 실시된다고 인증된 사업장을 성남시와 협약이 된 매체에 약 3개월 간 배너광고를 해준다. 또 성남시는 검증단이 검증한 사업장 리스트를 3개월마다 작성하여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3단계, 의무적인 온라인 노동교육으로 점차 의무화 만들기

최근 채용공고는 대부분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채용 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용주들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퀴즈를 풀게 하거나 혹은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한다. 노동 교육의 기본정보를 알고 있어야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게 약간의 강제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콘텐츠로 기본적인 노동인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4단계, 오프라인 고용주 노동교육 의무화

최근 채용공고는 대부분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채용 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용주들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퀴즈를 풀게 하거나 혹은 노동인권교육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한다. 노동 교육의 기본정보를 알고 있어야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게 약간의 강제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재미있는 콘텐츠로 기본적인 노동인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21〉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이 단계별 프로젝트는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한 활동을 시작으로 온라인 먼저 의무화를 시켜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고용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끝이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노력하는 올바른 노동인권 문화 기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성남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특성화고 학생들과 같이 노동인권이 꼭 필요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늘려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 성남시 내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고용주 지식 함양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진다면 “청소년 노동인권 알 + 고용주 노동인권 알 = 서로의 노동인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노동인권 문화 성남시”가 완성될 것이다.

■ 중고등 청소년들과 더불어 후기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 기대

사실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 대는 2024 후기 청소년들이다. 최근 20세 이하 청소년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이전 노동인권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2024 또한 불합리한 노동현장에서 대다수 침묵하며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노동인권 검증단의 50%를 대학생으로 구성한 이유는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2024 후기청소년들도 노동인권을 잘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또 고용주의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후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노동인권에 대한 자의식이 이루어지는 고용주들의 올바른 변화

인식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인지하는 것이다. 무엇을 시행할 때 강제성을 띄는 법안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라는 법안을 바로 당장 만들어 강제성을 가진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다. 인식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인권은 지키는 사람보다는 그 법을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금보다는 보상을 택했고, 처벌보다는 칭찬을 택했다.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점차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제안을 통해 그 변화의 시작이 성남시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연합기구 설립

정당한 가치

소속기관

정자청소년수련관 및 늘푸른고등학교 정규 동아리

제 안 자

류지민 김서현 김지연 전치현 최윤서
노현지 정찬양 윤승현 박진영 최수연
전효진 박경민 김하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안주제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연합기구 설립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1-1 문제인식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다.

한 달 동안 학생회 친구들이 열심히 의논했던 체육대회에 대한 계획과 기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도 선생님들께서 귀를 닫고 한 마디 말로 묵살시킨다면 우리가 의견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1) 현실 (The Reality)

늘푸른고등학교는 12월에 있을 동아리 발표회를 앞두고 있다. 동아리 발표회는 1년에 한 번 뿐인 축제로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이 열정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들려오는 건 ‘어차피 결정은 선생님이 할 거잖아’, ‘학생회에서 아무리 기획해봤자...’ 와 같은 맥 빠지는 예단뿐이다.

우리 역시 늘푸른고등학교 학생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밌고 알찬 축제를 기획해보겠다는 과거의 희망 가득한 의지가 꺾인 상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축제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학생들의 대표기관인 학생회가 아닌 선생님 혹은 학부모에게 있다. 교복의 불편함, 화장실 악취 등의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사항부터 체육대회, 축제 등 즐겁고 알찬 학교 문화생활을 위한 활발한 기획 활동까지 학생의 의사결정권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2) 학생의 자주성, 의사결정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학생회에서 겪어온 불합리함을 생각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 및 의견은 교사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행복추구권과 복지 증진에 관한 의무 - 제12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라고 청소년의 의사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학생 자치회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각 학교마다 활동 중이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기본권 제 3장 '학생과 교직원'의 제17조(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제기한 문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조항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어주지 않음으로써 학교 내에서 아동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준비 기회 또한 갖지 못하게 한다.

1-2 문제 제기

1) 타 학교 학생회 조사

성남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학생회의 활성화 정도와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SNS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학생들과 학생회간의 소통이 활발한가? (공지사항 전달 및 의견전달 수단)

총 8개의 학교조사 결과, 8개 중 6개의 학교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나머지 2개의 학교 중 단 1개의 학교만이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와 학생들의 요구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고 답하였다. 질문 1을 통해 성남시 내의 고등학교마다 학생 의견 반영률과 자치 활동 활성화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앙고와 이매고는 대의원회의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반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학생회에게 잘 전달되었던 반면, 양영디지털고, 송림고, 수내고, 성남금융고, 분당경영고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과 안전이 학생자치회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잘 반영되는 중앙고와 이매고 역시 대의원회의에는 학급의 임원들만 참여할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 진행되는 소리함 역시 스마트폰이 없거나 SNS 계정이 없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였다.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모든 집단 활동으로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을 보장하고자 설립된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구지만 시 내의 고등학교마다 심한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자치회로 수집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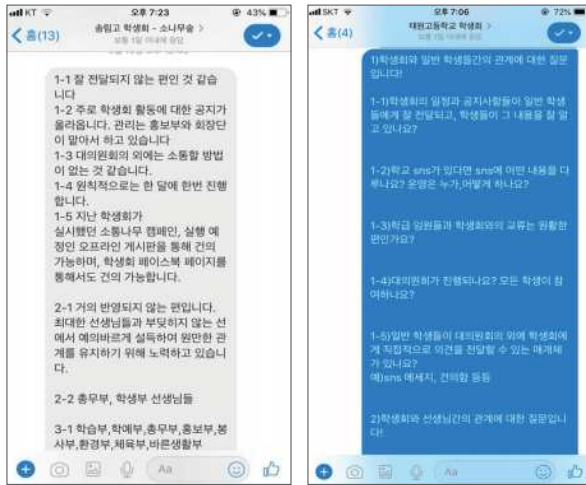
#질문 2. 학생회의 의견이 선생님에 의해 잘 전달되지 못 하는가

총 8개의 학교조사 결과, 8개의 학교 중 6개의 학교가 선생님에 의해 학생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늘푸른고등학교의 경우, 페이스북 학생회 페이지 및 온라인 의견 건의함(N청원)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선생님들의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얻은 학생들의 의견이 학생회의 활동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은 오로지 교사들에게만 주어지고, 학생회 회의 등에서 발의된 의견은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학생회에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사 결과, 늘푸른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성남에 속한 타 고등학교에서도 대부분 학생회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가 학생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학교에 대한 학생회의 영향력조차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학생회가 잘 활성화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선생님과의 원활한 교류와 일반 학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간의 학생회 활성화 정도의 차이로 인해 성남시 내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동등하게 보장 받아야 할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회의 영향력이 학교에 따라 달라져 생겨나는 것이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타 학교 조사에 대한 송림고의 답변

▲ 태원고에 공통질문을 보낸 모습



▲ 볼복고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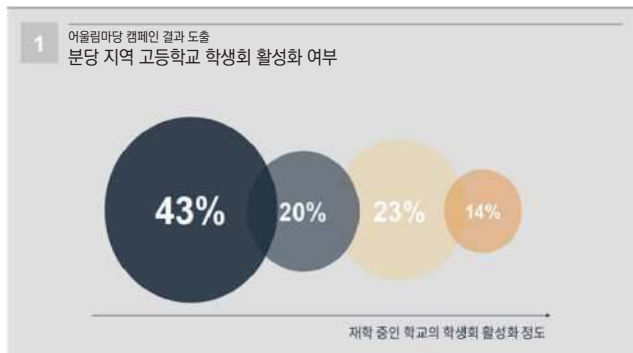


◀ 낙생고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모습

2) 설문조사

2018년 9월 1일 성남시청에서 개최된 성남시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성남시 고등학교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학생회 문제의 원인과 학생회 연합 조직에 의견을 조사하였다.

#질문 1. 분당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활성화 여부



분당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활성화 정도는 위와 같이 '매우 안 되어있음' 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조금 안 되어있음' 20%, '잘 되어있음' 23%, '매우 잘 되어 있음'이 14%를 차지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늘푸른고등학교에서 느꼈던 학생 자치 활동의 비활성화 문제가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분당 지역의 대다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질문 2. 학생회 활동의 비활성화를 초래하는 원인



29%

지나치게 높은 선생님들의 권한

23%

학생회와 일반 학생 간 소통 부족

12%

적은 예산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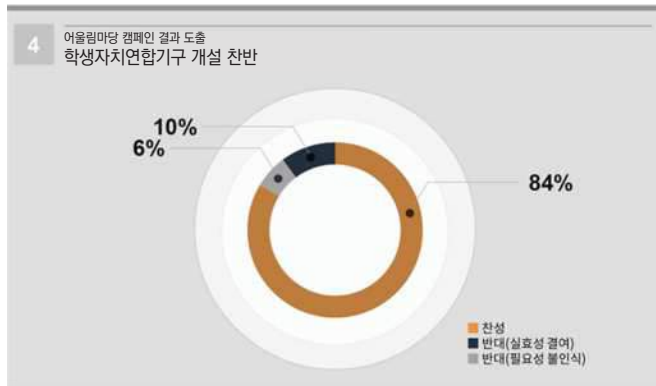
학생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무관심



학생회 비활성화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원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선생님들의 권한'이 29%, '학생회와 일반 학생 간 소통 부족'이 23%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학생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은 자신들이 건의함 등의 여러 방식으로 학교생활의 불편함, 교칙 개선 등 여러 의견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의 역할에 회의감을 느끼고 관심이 없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문 2. 학생회 활동의 비활성화를 초래하는 원인



학생 자치 연합 기구 개설에 대해 찬성이 84%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자치 연합 기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기존에 나온 해결방안 조사

BLU(분당지역고등학교학생회연합)

학생회 연합조직 BLU (Bundang Leaders Union)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와 매년 5월 청소년 동아리 연합축제인 '차오름제' 등 학생회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활용되고 있다. 비록 BLU는 한 학교 학생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함께 모여 토론하고, 동물 보호 캠페인 등의 활동도 주관하기는 하지만 성남시 내의 학교 중 분당구를 제외한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아닌, 분당구 내의 고등학교 학생의 단편적인 의견만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BLU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된 하나의 자치기구에 불과하고,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기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정되어 있고, 참여도가 낮은 편이라는 한계가 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또한 가장 치명적인 한계는 BLU의 활동은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과 달리 어떠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BLU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 BLU는 상술한 바와 같이 수련관 내의 자치기구에 불과하므로 자주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학생리더십캠프

현재 여러 지역의 거의 모든 학교는 학생 리더십 캠프, 간부수련회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자치회에 소속된 소수의 학생이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 리더십 캠프, 간부수련회에 참가한 성남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류00, 김00 학생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생 리더십 캠프에서는 학생회 임원들이 바비큐를 해 먹고, 게임 등을 하며 소수의 학생들만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 학생인 최00 학생은 이러한 소수 학생들만의 행사는 오히려 일반 학생과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심적 거리감을 늘리기만 하고 학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1에서 살펴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가치’팀은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성남시가 조례에 근거를 둔 위 기관의 사무국 운영을 맡아 학생자치권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

1) 조례제정목적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학교 내의 학생자치회는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이 다양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형식이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결사하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전무하여 효과적인 의견 전달 등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도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전무하여 도 조례의 입법목적이 합리적으로 달성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심도 든다.

본 조례는 ‘학생자치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조례 상 성남시 내 각 학교 학생자치회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총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사실상 학생자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결사기구를 만듦으로 인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 직,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또한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각기 다른 운영형태 및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생회의 권한 및 운영방식을 상향평준화 시키고 이로 인하여 성남시 내의 각 학교의 학생인권이 궁극적으로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목적 또한 가진다.

2)조례내용

조례는 기본적으로 성남시 내의 학생자치회의 연합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위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우회적으로나마 학생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학교운영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약칭 성고학연), 분당고등학교학생회연합(약칭 BLU)로 양분되어 있는 성남시 내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학생자치가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의 구성 및 의결방식, 의견제시 방식 등 총회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음과 동시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장, 교육장, 성남시의회 등과 공식적인 의견전달 통로를 열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의기구의 대의기구로서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는 성남시 전체 고등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다뤄지는 다양한 학생관련 정책들은 학사 운영에 있어서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자문위원 및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할 법적근거를 만들고 동시에 입법위원 등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다양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3)성남시가 이 제안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청소년 중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 학생집단이며, 학생들은 24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에서 보내지 않는 시간에도 교우관계 등 학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은 극히 적다. 따라서 학교의 운영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개진과 자치권의 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에는 이미 오랜 시간 운영되고 있는 성고학연과 BLU가 있다. 이 두 자치조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연대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성남시 청소년 웹포털인 차오름웹 등 위 두 기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예산, 법령, 행정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이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발한 생각들이 성남시에 현실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술하였듯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조례를 입법하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기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것만으로 성남시 고등학생들은 자치권이 충분히 확대되고 있음을, 더욱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4)조례안 초안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가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 12조, ‘청소년기본법’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성남시 소재 고등학생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성남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3항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학생회”란 제1호의 학교에서 학생자치의 일환으로 민주적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자치회를 말한다.
5. “학생회장”이란 제4호의 회장을 말한다.
6. “학생부회장”이란 제4호의 부회장을 말한다.

제3조(구성)

- ①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총회원 그리고 총회의 사무를 지원할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원은 성남시 내 각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1인 및 학생부회장 2인으로 한다.
- ③ 성남시 내 각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이 부재할 때는 각 학생회에서 호선으로 임시 총회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장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총회원을 승인한다. 다만 학생회장 및 학생부회장의 부재 사유가 치유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해당 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총회원의 임기는 총회원이 소속된 당해 고등학교 학생회의 임기에 따른다.

제4조(총회원의 사퇴)

총회원이 사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서면으로 의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단은 이를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다만 의장단은 해당 총회원의 사퇴서 수리와 동시에 이를 해당 총회원의 소속 학생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직권으로 총회원의 총원을 촉구할 수 있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제5조(의장단)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 ② 사무국은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총회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따른다.
- ③ 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장단은 제3조 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학생회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총회원 및 의장단으로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④ 의장은 총회 본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 ⑤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며 총회를 대표한다.
- ⑥ 의장단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⑦ 재적총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총회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적총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총회는 그 회기 안에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6조(상임위원회)

총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1. 법제위원회
2. 학습위원회
3. 시설환경위원회
4. 생활인권위원회
5. 학생윤리위원회
6. 문화복지위원회
7. 교류위원회
8. 홍보위원회

제7조(정기회의)

- ① 총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정기회의는 재적총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 ④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회의 이름으로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송부하며, 입법청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이름으로 입법청원한다.

제8조(임시회의)

-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 ② 임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국한하지 않는다.
- ③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안건은 회기 내에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송부할 수 있으며,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은 다음 정기회의의 통과 안건과 함께 관련 학교, 기관 및 단체에 송부한다.

제9조(의견반영)

- ①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시장(市政)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육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학교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하며, 년 2회 총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10조(사무국)**

- ① 총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에 사무국을 운영한다.
- ② 사무국은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총회 자체운영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탁운영 시 위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 ④ 사무국은 총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제11조(자문위원)

- ① 자문위원은 현직 성남시의회 의원이며 총회의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규정)

총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총회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는 학생들의 연합 기구 및 연대 기구가 설립된다.

전례 없는 학생들의 연합 기구인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가 최초로 설립됨으로써 선거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여태껏 어디서도 목소리를 높일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학교 행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가 제정 목표에 있는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가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하는 운영위원은 각 고등학교의 회장, 부회장이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개입 없이 오직 학생들 간의 연합, 연대로 이루어진 기구이다. 이 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각자 학교의 문제점들을 학생들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 학생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다.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가 구성됨으로써 학생들은 그동안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앞서 언급했던 (문제인식-2번) 헌법 31조 4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행복추구권과 복지 증진에 관한 의무 - 제12조, 대한민국 교육기본권 제 3장 '학생과 교직원'의 제17조(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조항 - 제18조의 4항에 합치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여태까지는 청소년들이 학교마다 다른 학생회 구조 및 활성화 정도로 인해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받지 못했지만,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와는 무관하게 동등하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당한 가치'가 제안하는 조례는 헌법이나 다른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생자치권이 발전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청소년들은 미리 정치 및 사회참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각 학교의 독립된 학생회를 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기구와 닮아있는 기관에 참여하게 되며, 차기 정치 세대를 이끌어 갈 민주 시민으로써 나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정치기구와 학생회총회의 유사성〉

	국 회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
정기회	매년 1회	매달 1회
의장의 선출	국민의 투표	학생들의 투표
활동 목적	국민의 생활 향상	학생의 생활 향상
일반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선거, 정기회 운영 등의 활동으로 인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정치기관의 구성 및 의결 과정 등을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민주 시민 의식과 정치 참여 의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정당한 가치'는 궁극적으로 이 정책이 비단 성남시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의 도입 후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시 차원이 아닌 도 조례를 제, 개정하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효율적이고 활성화된 학생자치회에 참여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제8회 성남시 정책제안대회 제안서 자료집

인 쇄 : 2018년 11월

발 행 : 2018년 11월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발행인 :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수미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우13404)

문 의 : 031) 729-9000

<http://www.snyouth.or.kr>

사전 승인 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